

익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최초, 청년·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정비 임대주택 1300세대, 주변 시세 70~85%로 저렴하게 공급

익산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역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21일 도내 최초로 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의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모현동 이지움과 팔봉동 데테라스아트리체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해 분양되고 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1,300세대를 특별공급한다.

현재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3개 단지 882세대이며 민간 공공에서 계획 중인 임대주택은 7개 단지, 4,239세대로 2025년까지 총 4,921세대가 공급된다. 시는 이 가운데 1,300세대를 주변 임대 시세의 70~85%로 저렴하게 공

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아파트 건립 시 분양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거주자 우선공급 사항 등을 고려해 분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 가격과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 6년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직장인은 미혼자 연소득 1억원 이하,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1억 5,000만원 이하이거나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초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공급 대상이 고시됐으며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익산지역은 하반기 모현동 이지움(207세대), 팔봉동 데테라스아트리체(192세대),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345세대)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마동현대힐스테이트(454세대)와 마동공원GS자이(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1,515세대)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후 5년간 최대 약 2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규 주택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20일 교내 해양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 학습복합공간인 '캠퍼스 크리에이티브 존' 개소식을 열었다

군산대 창의형 첨단 학습복합공간 구축

'캠퍼스 크리에이티브 존' 개소

군산대학교는 지난 20일 교내 해양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 학습복합공간인 '캠퍼스 크리에이티브 존' 개소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독서와 사색도 즐기며, 팀별 활동을 통해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캠퍼스 크리에이티브 존은 해양과학대학 2호관 1층과 공과대학 3호관 지하층에 구축됐다. 개소식에는 객병선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축된 복합공간은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한 것으로, 학생들은 새롭게 조성된 창의형 학습공간에서 개인별, 혹은 팀별 활동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객병선 총장은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당연히 학습 의욕과 학습효과가 증대된다"며 "새롭게 조성된 학습복합공간이 학생들에게 학습과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합 가입 호응

군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이미지를 위해 군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기준)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입원위로금 (4주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전인엽 교수팀 그려핀 상용화 기반 구축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화학융합공학과 전인엽 교수팀이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이용한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LLDPE)의 기계적 물성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복합체 분야 최상위 저널(IF: 7.094)인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했다.

LLDPE는 범용고분자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과 내수성, 절연성, 투명도가 좋아 전기피복, 포장재, 농업용 필름 등에 사용되고, 낮은 인장강도 및 높은 신장률로 인해 성형이 용이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첨가제는 고분자의 기계적 강도 및 열적 안정성 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계화학적 공정을 통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대량 제조 및 공급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고분자 물성 강화용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함께해요

정현울 시장, 챌린지 첫 주자

익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 스스로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시는 21일 익산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 28만 인구 수와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챌린지 첫 주자로 정현울 시장이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위한 희망 메시지를 작성해 SNS에 게시했다. 챌린지 다음 주자로 익산을 사랑하

는 시민 3명이 지목됐으며 지목된 주자는 희망 메시지를 자유롭게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 이상을 지목하면 된다.

시는 이를 기점으로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챌린지를 지역 내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동호회 등에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현울 시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내 고향 익산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실용성 있는 정책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익산시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21일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챌린지를 실시한 가운데 챌린지 첫 주자로 정현울 시장이 나섰다

군산시, 자연재해 대비한다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군산시가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며 모두가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각종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지진, 해빙기)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처를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국비 28억2,500만원, 도비 10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52억 5,000만원을 확보해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붕괴위험지역 등 1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 영상 송출 및 변위 계측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사면붕괴(산사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지진 및 겨울철 해빙기 등 보이지 않는 재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

하도록 재난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 사전대피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초기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특히, 취약시간대 어려움을 겪었던 예방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특보 발효 시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기상특보사항, 주민행동요령 등 문자 및 동영상 송출하고, 위험지역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역 기상 상황을 확인해 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현재 시는 재해감시 CCTV 29대, 재난음성통보시스템 8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대, 자동유량경보시설 2대, 지진측정기 1대의 재난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 '잰결음'

용역 올해 12월까지 완료

군산민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아름다운 야간 문화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6월 용역 착수 후 현재까지 시민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의 주요 결과물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과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활용해 2021년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야간경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길용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체계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지친 주민에게 밝고 활기넘치는 야간경관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나아가 관광명소로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